



특별한 잠자리.

배럴, 트리 텐트, 버블 호텔, 마테호른 산장

자연의 품안에 안겨 특별한 하룻밤
별이 빛나는 밤의 알프스에 잠들다
로컬들의 예약 전쟁은 이미 시작되다

여름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스위스 사람들에게도 특별하다. 국내 관광에도 적극적인 스위스 사람들의 보다 낭만적이고 특별한 여행을 위해 스위스 각지에서 특별한 잠자리를 선보이고 있다. 취리히 도심에 마련된 배럴 호텔부터 공중에 부양한 트리 텐트, 호숫가와 고성, 포도밭에 자리한 버블 호텔과 마테호른 발치에 자리한 산악인들의 로망인 산장까지 특별한 잠자리를 소개한다.

1. 취리히(Zurich) 배럴 호텔

취리히에서 아주 특별한 잠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와인을 담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배럴에 차려진 방이다. 스위스 최대의 도시, 취리히 한 가운데 마련된 자연의 품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보고 싶다면, 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배럴 룸에서 하룻밤을 묵어보자.

글록켄호프(Glockenhof) 호텔의 정겨운 안뜰에 마련된 배럴 룸은 네 그루의 페르시아 아이언우드 사이에 자리해 있어 평온한 자연에 안긴 느낌을 선사한다. 배럴 룸 외에도 글록켄호프의 럭셔리한 스타일의 룸도 하나가 따로 제공되어 두 곳을 왔다갔다하며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풍성한 조식을 비롯해 글록켄호프 호텔에서 제공하는 4성급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조식과 환영주를 포함한 숙박비는 싱글룸은 CHF 280, 더블룸은 CHF 360이다.

www.glockenhof.ch

2. 필라투스(Pilatus) 트리 텐트

루체른(Luzern) 근교의 산, 필라투스에서는 올 여름, 공중에 동실 떠 있는 트리 텐트 숙박을 마련했다. 정상으로 향하는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프랙뮌테그(Fräkmüntegg)의 깊은 속속에서 마련된 트리 텐트에서 알프스의 고요한 밤을 보낼 수 있다. 하늘에 닿을 듯한 전나무 숲 속 나무들을 이용해 고정된 텐트는 공중 부양한 모양새로, 한 채당 성인 2인, 아동 1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프랙뮌테그 레스토랑에서 샐러드, 그릴, 디저트 뷔페가 포함된 디너, 조식, 어드벤처 파크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 중, 6월 10일과 24일, 7월 8일과 22일, 31일, 9월 12일과 14일, 9월 2일과 16일에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날짜의 경우 단체에 한해 자유롭게 날짜를 지정해 예약할 수 있다. 1인 1박 요금은 어른은 CHF 125이고, 8-16세 아동은 CHF 95다. 침낭은 직접 준비해야 한다.

www.pilatus.ch

3. 보덴제(Bodensee) 근교의 버블 호텔

생갈렌(St. Gallen) 위쪽 독일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보덴제 호수 근처에는 이색 호텔이 여행자들을 반긴다. 바로, 버블 호텔이다. 다섯 곳에 마련된 버블 호텔은 성인 1-2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호텔로, 투명한 버블 안에 마련된 침실에서 여름에는 드넓은 호수나 고성을, 가을에는 노랗게 물든 포도밭을 담은 자연을 투명하게 감상할 수 있고, 그 품에 안겨 안락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선한 공기가 계속 주입되고 순환되게 설계되어 있어 답답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조식을 포함한 숙박료는 CHF 190부터 다양하다.

www.himmelbett.cloud

Switzerland Tourism

13Fl., Dongbu Dadong Bldg., Da-Dong, Jung-Gu, Seoul, Rep. 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4. 체르마트(Zermatt) 산장

마테호른(Matterhorn)의 베이스 캠프라고도 불리는 등반가들의 로망인 산장이 있다. 바로 해발고도 3260m 에 자리한 호른리취테(Hörnlihütte)다. 150 여년 전, 1865 년 마테호른을 최초로 정복한 웜퍼(Whymper)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아는 등반가들에게 ‘로망’으로 꼽히는 산장이다. 이 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마테호른으로 향하는 능선 코스를 걸어 웜퍼가 정복한 그 세상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2017 년 7 월 2 일부터 여름 시즌에만 한해 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 인용부터 8 인용 객실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슈바르츠제(Schwarzsee)에서 하이킹으로 2 시간 정도를 걸어야 산장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호른리취테에서 감상할 수 있는 풍경은 인생샷을 보장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너와 조식, 티를 포함한 숙박료는 1 인 CHF 150 부터 이용하는 객실에 따라 다양하다.

www.hoernlihutte.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